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경상북도 참석 관련 보도자료(11.4) 스크랩

※ 키워드 : NEAR, 회원단체, 양자회담

2021.11.08.(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러 극동 지방정부 파트너십 강화... 신북방경제 선도	
2	신문	일요신문	경북도,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러시아 극동 지방 정부 파트너 십 굳건히 다져	
3	신문	대경일보	"한-러 지방정부, 실질적 경제협력 가시화 돼야"	
4	신문	경북일보	"신북방경제 중심 도약"...굳건한 동반자 관계 구축	
5	신문	경북제일신문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6	신문	대구일보	경북도, 러시아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한다	
7	신문	경북신문	이철우 도지사 "경북, 한러 신동방·신북방정책으로 협력·번영 이끌 것"	
8	신문	경북매일	경북도-포항시-러시아 지방정부 파트너십 통해 공동 번영 팔 걷어	
9	인터넷	지이코노미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0	인터넷	뉴데일리	경북도, 신북방경제 협력으로 환동해 시대 중심 부상	
11	인터넷	쿠키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북방정책, 경북이 중심 될 것"	
12	인터넷	위클리오늘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3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경북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4	인터넷	에너지경제	경상북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상생교류 기반 다져	
15	인터넷	잡포스트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6	인터넷	시대일보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7	인터넷	국제i저널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8	인터넷	세계타임즈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19	인터넷	데일리연합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0	인터넷	환경일보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1	인터넷	프라임경북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2	인터넷	김천인터넷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3	인터넷	경북인터넷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4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5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6	인터넷	경인뉴스투데이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7	인터넷	영남타임즈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28	인터넷	구미뉴스	경북도,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29	인터넷	구미일보	경상북도,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30	인터넷	CBN뉴스	경상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31	인터넷	뉴시스	경북도, 러시아와 교류 확대에 주력	
32	통신사	내외통신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경북도-러 극동 지방정부 파트너십 강화...신북방 경제 선도

윤 김우섭기자 | 승인 2021.11.04

울산서 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도 17개 시도-러 18개 지자체
기업·정치인 등 300여명 자리
각종 분야 상생교류 기반 다져



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한-러 정부인사와 대표단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이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

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섭기자



경북도,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러시아 극동 지방 정부 파트너 십 굳건히 다져

3~5일...울산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열려

온라인 기사 2021년11월04일 12시55분

- 다양한 분야 경제협력 파트너...환동해시대 중심 부상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울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 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이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첫번째줄 오른쪽 첫번째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4일 도에 따르면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통상·문화·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고,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 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도 했다.

이외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으로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이 기사 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5620

대경일보

HOME > 종합뉴스 > 경제

“한-러 지방정부, 실질적 경제협력 가 시화 돼야”

✎ 최일권 기자 | ✎ 승인 2021.11.04 19:35



경북지사·포항시장 포럼 참석
지속가능 공동발전'울산 선언'
러 상원의원 경북 방문 요청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울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상생교류 기반을 다졌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러시아 방문 당시 양국 정상간 합의로 이뤄졌다.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해 동반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앞서 2018년 포항에서 열린 1차 포럼에서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제2차 포럼은 20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포럼에는 우리나라 17개 지자체와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회의의 비중을 높였다.

양국은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울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된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경북도는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 회담에서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했다"며 '우호교류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 할 것"을 당부했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지사는 이 밖에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 회담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 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choi3651@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북방경제 중심 도약"...굳건한 동반자 관계 구축

☞ 광성일, 양승복 기자 | ⌚ 승인 2021.11.05 | 📄 2면

경북도-포항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회식에서 이철우(앞줄 오른쪽)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

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 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

참해 주길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대표단은 행사 2일차인 4일에 참석해 공식 오찬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 러시아 상원의원단 면담, 한-러 지방정부 서밋,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 미술전 관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한-러 지방협력포럼 첫 개최지로서 올해로 3번째로 이어진 이번 포럼 참석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국 지방정부 간 공고히 쌓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 상생협력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러 지방정부간 실질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양자회담은 국내 지자체와 러시아 주정부 간 일대 일 회담으로, 포항시는 사할린주와 연해주, 캄차카주, 자바이칼주정부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할린주와는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관련 인적자원의 양성과 교류방안에 대한 의견, 풍부한 수산물 교역 방안 및 포항-사할린-일본 카페리선 취항을 위한 협력방안, LNG교역과 관련해 장기적 상호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한인축제 등 공동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것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해주 주정부와는 포항 영일만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 간 현재 컨테이너 정기선이 운항 중에 있지만 다소 아쉬운 물동량 교역에 대해 협력 강화방

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일만항-블라디보스토크항-일본 항만간 크루즈 및 카페리 항로 개설,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물 자원의 수출입 및 유통 방안 등 항만물류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포항국제불빛축제' 때부터 이어온 양국 청소년 캠프 등에 대해 언급하며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등 연해주 주정부와 다방면에 대해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또 코로나19로 해외출입국이 온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정상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회담을 진행하게 된 캄차카주정부와는 캄차카주의 천혜의 자연 환경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한러간 주요 교역 수산물인 명태와 킹크랩 등의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 지방정부 간 크루즈 및 카페리 항로 개설에 대한 실무자급 협의를 제안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성일, 양승복 기자

정치/지방자치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 전체기사
- 행정
- 정치/외교
- 지방의회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 울산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

2021년 1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강동원기자]

기사제보

망설이지 말고, 글썽 올려주세요.

광고문의

주간 8천부 발행
4천부 전국각지역발행

구독신청

PDF서비스와 다양한 뉴스 및 영상 제공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공지사항
- 갤러리



↑↑ 지방정부 양자회담

(c)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영양군, 202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 권영세 안동시장, "적극적 방역참
- 구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마무리
- 상주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 (위)지비라이스, 상주시 청리산단에
- 청송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특판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 김천시, 내년도 예산편성 위한 지방
- 예천군, '공설운동장' 명칭 '예
- 김천시, 제7회 규제개혁 공모전 시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러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다들기사보]**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이전 페이지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련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경북도, 러시아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한다

발행일 2021-11-04 16:01:28

한·러 지방협력포럼 통해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 확대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첫번째)가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통상교류 협력을 위한 회의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3~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이 지사는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 만나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양 지역 간 관광·물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는 2019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천연 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 지사는 이어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 광물 매장지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향후 문화·청소년, 예술 단 상호 파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부랴티야공화국은 경북도가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로 불리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며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Copyright © 2018 www.idaegu.com All rights reserved.

이철우 도지사 “경북, 한러 신동방·신북방정책으로 협력·번영 이끌 것”

경북도,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여

무역상담 등 프로그램 다양

'울산선언' 동반자관계 형성

양국, 에너지 산업분야 대해

실질 성과 발현 위해 '노력'

서인교 기자 / sing4302@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04일(목) 19:29

경북도가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 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등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url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0&idx=328225

Copyrights ©경북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매일

HOME > 정치 > 지방행정

경북도-포항시-러시아 지방정부 파트너십 통해 공동 번영 팔 걷어

✎ 박동혁·피현진기자 | ㉠ 승인 2021.11.04 19:44 | □ 1면

제3차 한·러 포럼 울산서 개최 경제·문화 등 다각적 교류 논의

포항 영일만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동북아 물류 대동맥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 2018년 포항시에서 처음 개최했던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포항 영일만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경북도 대표단은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

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두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한·러 지방협력포럼 첫 개최지로서 올해로 3번째로 이어진 이번 포럼 참석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국 지방정부 간 공고히 쌓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 상생협력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혁·피현진기자

박동혁·피현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등록 2021.11.04 12:54:43



▲ '경상북도청' 사진. [사진제공=경북도]

G.ECONOMY(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 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 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NewDaily
대구·경북

경북도, 신북방경제 협력으로 환동해 시대 중심 부상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기사입력 2021-11-04 17:09:00 | 최종수정 2021-11-04 20:04:59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 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철우 지사(왼쪽)는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경북도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04/2021110400219.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쿠기뉴스 > 전국대구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북방정책, 경북이 중심 될 것”

노재현 / 기사승인 : 2021-11-04 17:31:59

울산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상생교류 기반 다져



이철우 지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가 울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상생교류 기반을 다졌다. (경북도 제공) 2021.11.04

[안동=쿠기뉴스] 노재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일 울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상생교류 기반을 다지는 등 지평확장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러시아 방문 시 양국 정상간 합의로 이뤄졌다.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해 동반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2018년 포항에서 열린 1차 포럼에서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20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포럼에는 우리나라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회의의 비중을 높였다.

양국은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울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된다.

이 지사는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이철우 지사가 그루데프 바실리사할린주 투자정책부장관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 제공)
2021.11.04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면서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경북도는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와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 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했다”며 인사를 건넨 후 ‘우호교류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인 만큼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한 후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 할 것”을 당부했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지사는 이 밖에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 회담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실질적인 경제협력 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가 스테츠크 니콜라이 연해주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경북도 제공) 2021.11.04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HOME > 전국 > 경북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 주영선 기자 | ㉠ 승인 2021.11.04 08:14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 경상북도청

[경북 위클리오늘=주영선 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이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영선 기자 etc@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투데이 | <https://me2.do/GmFyDdkh>

경북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기사승인 [2021-11-04 10:46]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아시아투데이DB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안동/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경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와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갖고 연해주 스테초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 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seop7555@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경상북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상생교류 기반 다져

정재우 jw5802@ekn.kr

최종 기사입력 2021-11-04 17:39:37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 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프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시설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 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 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대로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jjw5802@ekn.kr

정재우 (jjw5802@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윤 구용 기자 | ㉠ 승인 2021.11.05 09:52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사진제공/경북도)

[잡포스트] 구용 기자=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이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웅 기자



시대일보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기사입력시간 : 2021/11/07 [14:14:00]

강수국 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아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으로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국기자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문화 연예 역사·문화 경상북도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이연서 기자

승인 2021.11.04 19:47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식©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스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서 기자 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세계타임즈

-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
-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한성국 기자 news@thesegeye.com | 2021-11-04 12:52:46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 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 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장우혁 기자 jwh3975@hanmail.net

등록 2021.11.04 08:23:27



▲ 경북도청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 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 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Copyright © 2021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All Rights Reserved.



HOME > 전국네트워크 > 영남권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 정순기 기자 | Ⓢ 승인 2021.11.04 19:17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경상북도=환경일보] 정순기 기자 =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 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 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순기 기자 sungi5537@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프라임경북뉴스

HOME > 사회 > 일반사회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 김진한 기자 | Ⓞ 승인 2021.11.04 17:22

-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
-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한러지방협력포럼(지방정부_양자회담-그루데프_바실리_사할린주_투자정책부장관)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 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 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한 기자 press@gbprimenews.com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 경북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기사입력 2021-11-04 16:33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

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

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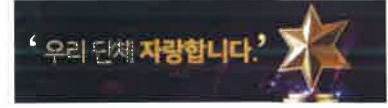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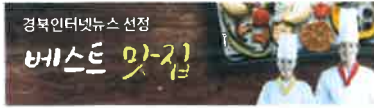
김광수 기자 (koreainews@naver.com)



최종편집일 2021-11-08 08:53

2021년 11월 08일 (월요일) 11:22:57

경북 9.0℃ 로그인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트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크



경북도, 2021년 바다위드가죽캠프 개최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60명(국내 57, 해외 3) 발생



'경북으로 떠나는 땀방울'차지금, 출발합니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94명(국내) 발생

뉴스룸 > 경북도정뉴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기사입력 2021-11-04 16:26

복사 목록 인쇄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호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최근 많이 본 기사

1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84명(국내) 발생



2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52명(국내 49, 해외 3) 발생



3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60명(국내 59, 해외 1) 발생



4 2021 경북 전국체전, 일상회복의 희망 밝힌다!



5 대한체육 100년의 시작, 제102회 전국체전 경북에서 개최



베스트기사

[기관단체]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84명(국내) 발생

[기관단체] 제42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구미시각장애...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42명(국내) 발생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94명(국내) 발생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31명(국내) 발생

[구미시정뉴스] 북구미 하이패스IC 개통, 통행시간 20...

[구미시정뉴스] 구미공단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21명(국내) 발생

[구미시정뉴스]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숙시원한 나들이

Hot 포토이슈

1 / 2



이철우 도지사, 과학·문화·관광·환경·농업
분야 운동화 선물



경상북도, 독도수호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지구환경측정(주), 경상북도'가정위
탁 보호사업'기부금 후원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 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 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 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영/기자 (gbinews9472@hanmail.net)

♥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여러분의 후원이 경북인터넷뉴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경북인터넷뉴스 후원하기 >

후원/행사취재요청

☎ 054-452-8030

iNEWS 경북도정뉴스 관련기사

경북도친환경농업과,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부서

"독도를 휘날리며~"경북도 독도깃발 공모

김관용 도지사, 태풍할롱피해 최소화 강력지시

경북도 올해는 김장 더 담그고, 김치 함께 나눠 먹어요

구미시 사선거구 최경동 후보, 운동원과 함께 인사 김형식 후보, 박근혜 대통령 위한 천배 인사

댓글 0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은 5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쓰세요.



[새로고침]

0/500

등록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맨위로

gbin.co.kr 경북인터넷뉴스

독자공간 > 기사제보 독재후원가입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하기

회사소개 > 회사소개 윤리편집규약강령 사업영역 오시는길 전국네트워크

경북인터넷뉴스 주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거승빌딩 3층 제보·광고문의: 054-452-8030 팩스: 070-7016-1481 E-mail: gbinews9472@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15 등록번호: 경북아00012호 사업자등록번호: 513-13-50928 통신판매번호: 제2008-5080133-30-2-00162호

발행인: 최현영 편집인: 최현영 청소년보호책임자: 최현영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gbin.co.kr All rights reserved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기사입력시간 : 2021/11/04 [08:23:00]

김연실 기자 kspa@kspnews.com



경북도청사

[케이에스피뉴스=김연실 기자 kspa@kspnews.com]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 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아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아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 서덕수 기자 Ⓞ 승인 2021.11.04 10:17

|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경북도청사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

선,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덕수 기자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기사게재일: [2021-11-04 08:55:59]

박기표 pkpyo78@hanmail.net 기자



▲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이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엔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

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투데이뉴스 제공-

기사작성: 2021-11-04 AM 8:18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경북도는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했다.



도는 자리에서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지난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초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 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 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의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 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광 기자dcht7000@naver.com

[영남타임즈.kr uyn@uyn.co.kr] 2021-11-04 AM 8:18

<Copyright (c) 영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

경북도,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으로 도약 -
-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임양춘 기자 lyc8769@hanmail.net

등록 2021.11.04 15:28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 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스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 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2021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일보

경상북도,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 환동해시대 신북방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등록 2021.11.04 16:40:11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 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3일(수)부터 11월 5일(금)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 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이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스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다.

끝으로 부라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라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구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상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 -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2021년 11월 04일 [cbn뉴스]



↑↑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식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 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 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 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 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초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 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경북도, 러시아와 교류 확대에 주력

등록 2021.11.04 15:49:05



[안동=뉴스시스] 이철우 경북지사(왼쪽)와 연해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4일 회담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11.0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스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3~5일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한국의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해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 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경북도는 2019년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열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크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으로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 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동참을 요청했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다.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신북방경제의 중심 도약

윤 강직정 기자 | 승인 2021.11.04 17:54

3~5일,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부상



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내외통신]강직정기자=경상북도는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 파트너 십을 굳건히 하고 상생교류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러시아 극동관구와 북극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렸다.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를 비롯하여 한-러 기업인과 정치인,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지방정부 회담,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 공동선언문 채택,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울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경북도는 UECO에 마련된 한국전시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수출상품을 전시하는 경북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한러지방협력포럼 지방정부 양자회담, 왼쪽부터 그루데프 바실리 사할린주 투자정책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간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국의 광역지방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2018년 포항에서 제1차 포럼이 출범했으며, 경제.통상, 교육.과학, 항만,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을 담은 '포항선언'을 채택해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으며, 경북도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에 불을 지폈다.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에서 13명의 극동개발부 장관과 23명의 극동개발공사 사장, 주지사 및 부총리 등이 참석해 회의의 관심과 중요성을 더했다.

이번에 채택된 '울산선언'에서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공동발전과 호혜적인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시아 3개 지자체와 회담을 가졌다.

먼저, 연해주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지사는 연해주와는 짧은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개소한 연해주사무소를 통해 무역사절단과 박람회 등 통상협력과 문화.관광교류가 확대됐고, 영일만 국제터미널이 완공되면 양 지역의 관광.물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해 향후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어진 사하공화국 세르게이 매스트니코프 부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사하공화국이 2019년부터 2년간 NEAR의장국을 역임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양 지역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과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광물 매장지역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끝으로 부랴티야공화국 알렉세이 츠이데노프 수반과의 회담에서는 NEAR 활동과 경북도 주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해 준 데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문화, 청소년, 예술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와 무역 그리고 상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랴티야공화국은 바이칼 호수의 60%가 위치해 있는 호수의 나라이며 한민족 문화의 발원지로 추측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상원의원 5명과도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지방정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협력과 번영을 이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포항 영일만항과 신공항 건설로 양국의 거리가 훨씬 단축되면 실질적인 투자와 경제교류의 가시화는 물론, 문화, 관광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직정 기자